

산업전환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적 과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7.9.(목) 문화일보, 초과이윤 공유 구상까지... '사회연대임금' 성격 담았나

- (중략) '사회연대임금'이 연상되는 내용도 일부 담겼다. 노동자의 한시적 소득 공백과 임금 하락분을 사회적으로 보전하는 방안과 전환의 성과를 미래세대와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노동 참여와 무관하게 삶의 기반을 지키는 새로운 소득 보장 방안도 담겼다.

2. 설명 내용

- '26.7.9.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의 '담대한 과제'는 단기간 내 해법을 제시하기 어려우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구조적 과제에 대해, 문제가 현실화된 이후가 아니라 미리 노사정이 함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로 제시한 것임
 - 이는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제언 등을 감안한 것으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님
 - 추진 여부뿐만 아니라 지원방식과 대상, 재원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현장 노사 및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갈 사안으로, 어떠한 특정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도 확정된 것은 없음
-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본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노사와 함께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점검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책임자	과 장	어일천 (044-202-7220)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박득영 (044-202-7412) 노선영 (044-202-7407)

